

육군 오투기 부대 지역 어르신 무료진료 화제

영평미군훈련장 인근 지역 치과, 한방과 진료나서



육군 오투기 부대에서 지난 11일 지역내 오지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해주었으며, 앞으로도 월 1회 정기적으로 진료하기로 했다.

마을 인근에 번듯한 의료시설 하나 없어 몸이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오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군부대가 나섰다.

육군 오투기 부대는 영평미군훈련장 인근 지역(포천시 청수면 운산리) 주민 대부분이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지만 의료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을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들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부대는 지난 11일 마을회관에 임시로 마련된 간이 진료실과 치과 진료차량에서 내과와 치과,한방과 등의 군의관들이 정성껏 마을 어르신들을 보살폈으며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50여명 이

상의 환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갑자기 몸살에서 충치치료, 집과 부황 등 이곳을 찾은 지역 주민들은 아플수록 손자같은 군인 의사선생님이 친절한 진료와 함께 건강상담까지 해주자 "생각지도 않았던 자식에 게 효도받는 느낌이다"며 무척 고마워했다.

마을 새마을 지도자인 정운교(46세)씨는 "치과치료가 주민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었는데,오늘 군부대에서 직접 찾아와서 진료를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료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들 주민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겁고, 도움이 절실한 것을 확인한 부대에서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대의 이번 진료활동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건강까지 지키는 고마운 이웃의 모습으로 민·군 유대 강화와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군내면' 코스모스 길과 황금 들녘은 한 폭의 그림

포천사람들 운동공간으로 많이 찾아와



군내면의 코스모스 길이 주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포천시 군내면 삼성북리 5km 구간에 코스모스 길을 가꾸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함과 동시에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즈넉하게 해주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코스모스길은 포천시가 꽃과 향이 어울리는 고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직접 코스모스길을 가꾼 장본인은 포천농업기술센터 군내지소 이한설 지소장이다.

이 지소장은 이 구간에 코스모스씨 11kg을 직파했다. 지난 4월 28일 직파해 이번 가을에 코스모

스가 만개한 것이다. 코스모스길을 가꾸는데는 삼성북리 노인회가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추석명절에 고향을 찾은 자식들이 이 아름다운 코스모스길을 보고 사진도 찍으며 정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제초작업 3회, 시비 1회 등의 수고를 통해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울수 있게 됐다.

이 지소장은 "올해 꽃이 떨어지고 나면 꽃씨가 떨어져 다시 그 자리에서 내년엔 꽃대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화려한 코스모스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코스모스는 해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때문에 코스모스 길을 감상하려면 해를 등지고 가야 한다.

이 지소장은 "이 코스모스길은 김정에 집 군내면장 재직시절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 길을 활용해 반월산성 축제를 만들어 연계하고 단축마라톤 코스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동 정



제2회 오성과 한음배 전국 바둑대회
변진수 포천교육장은 17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오성과 한음배 전국 바둑대회 개최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대회 참가자들의 선전을 당부했다.



탈북주민 위한 소양교육
최원일 포천경찰서장은 15일 최근 포천지역으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포천지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소양교육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월동기 예방대책 지시
이대열 포천소방서장은 13일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위험이 많은 취약지역에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월동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경기도 회장단회의 참석
윤장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포천시협의회장은 13일 용인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회장단회의에 참석해 민주평통의 발전방향에 관해 토의했다.



포천어린이연극대회 참석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16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된 제11회 포천어린이연극대회에 참석해 출전한 어린이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지하였다.



'김근희의 춤' 공연 참석
김진동 포천에총회장은 14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포천시와 포천반월아트홀 주최로 열린 '2004 포천시민을 위한 김근희의 춤' 공연에 참석해 무용단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근희의 춤' 공연 참석
이동해 대한노인회포천시지회장은 14일 오후 7시 반월아트홀 대강당에서 개최된 노인들을 위한 김근희의 춤공연을 노인 4백여명과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해뜨는집 자원봉사
이영업 바르게살기포천시협의회장은 11일 신북면 기지리에 위치한 복지시설 해뜨는집을 방문 자원봉사대 15명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력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학생공로사업관계자 간담회
윤순옥 포천제2실천협의회장은 19일 오후 공로사업을 실시한 송우초, 관인초, 관인중, 동남고 교사 및 학생 1명씩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사업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KBS열린음악회 질서유지
김재현 포천모범운동장지회장은 16일 KBS열린음악회가 개최되는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주변과 34번 국도변에서 교통통제 및 교통정리를 실시했다.



...작은 해바라기...

늦은사우러 비오는날 낮모르는 작은집에
보금자리 마련하고 온갖정성 다바쳐도
한이레가 지나서야 까만모자 위에쓰고
수줍은얼굴 드러내니 이제야 해바라기
한달만에 이발 저발 휴경지로 시집보내
가뭇역경 이겨내고 노오란 꽃 피웠구나

아침에는 동쪽으로 저녁에는 서쪽으로
고개속여 인사하니 햇님도 어여버라
마디마다 꽃망울을 속북히도 주셨구나
오가는이 즐거우며 사진한장 찍지만
꽃잎에 입맞추고 꽃망이에 취하더니
조금만 더 컸더라면 서서 포옹 해주려만.....

맑은하늘 바라보며 햇님마중 갔더라면
벌나비도 쉬어가며 예쁜꽃을 보려마는
지리한 장마속에 목디스크 걸리더니
고생도 보람없이 손님맞이 못하구나
찬서리가 내리려면 아직도 두달보름
해바라기 떠날자리 무순꽃을 채워줄꼬



2004.7.20 해바라기밭에서
이한설
농업기술센터 군내지소장

새터교회, 나눔의 장터 눈길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바자회 마련



외국인노동자들이 바자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3회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바자회'가 지난 17일 신북면

만세교2리에 위치한 새터교회(담임목사 박춘식)에서 열렸다.

새터교회에서는 1년 동안 준비한 현웃 2천벌과 이불, 카페트 등 피복류와 생활용품 수천 점을 준비했다.

바자회에서는 수 만원을 호가하는 신상품이 몇 천원에 판매되기도 했고, 카페트 같은 품목은 외국인에 한해 1인 한 매씩 제한하여 팔기도 했다.

한편 새터교회 여전도회에서는 과일과 음료를 준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대접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在家 장애인과 함께 하는 세상구경

지난 15일 오후 자립적으로 외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8명과 포천성당(주임신부 김학수) 신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27명과 포천보건소의 지원으로 관내 명소를 구경하는 기회를 갖았다.

포천시 보건소 재활담당 최영삼씨는 "평소 장애인들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던 중 매일 방안에만 있는 장애인들이 안타깝게 느껴져 기회를 찾고 있었다"며 "포천성당의 신자들이 자원봉사를 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강석천(50, 신음동)씨 등 27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셨다"고 밝혔다.

경추부위 척수손상환자 부인과

함께 살고 계시는 강대구(47, 신음동)씨,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강대준(40, 신북면)씨는 사지마비환자로서 "몇 년 만에 세상구경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기뻐했다.

특히 강대준씨는 3층 빌라에 살고 있어 연로한 어머니 혼자서는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평옥(53, 자작동)씨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척추관절까지 굳은 상태여서 휠체어도 탈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날 보건소에서 제공한 구급차를 이용해 외출을 시도했다.

산정호수에서 하늘 보고 들것

에 누워있던 조평옥씨는 "작은 단풍이 아끼 손 같다"며 나뭇대로 세상구경을 하고 있었다.

이번 외출은 산정호수에서 산정호수아래까지 30여 분 간 휠체어와 구급차의 들것으로 산책로를 따라 이동해 폭포아래 식당에서 간식 나눠먹고, 반월아트홀로 이동해 견학을 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한편 이번 행사는 재가 장애인들에게 세상을 구경시켜 활력을 증대시키는 물론 보호자의 부담감과 봉사자의 장애인 이동에 관한 어려움 등의 체험에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지혜배기자 94spice@hanmail.net

깊어가는 가을 장식하는 學校 축제

깊어가는 가을 각 학교마다 운동회와 축제가 펼쳐졌다. 왕방초교(교장 한무송)는 14일 '가을 대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동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바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으로 설치된 우레탄 트랙과 농구장 등의 완공을 축하하는 기

념 태일 절단식이었다. 15일 청성초등학교에서도 '2004학년도 청성 가을 한마당 축제'가 개최돼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날 운동회에 참석하고 청성초교 원어민 교사 라우드(미국)는 "운동이 아이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 같다"며 "처음

보는 운동회인데 매우 흥미롭고 재밌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내촌중·경복중·이동중·포천중학교에서는 체육대회 및 청소년 어울마당이 함께 펼쳐졌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영북중고 큰 여울제 하나될 날을 기다리며



영북종합고등학교 축제를 즐기고 있는 학생들.

영북종합고등학교는 7일과 8일 영북종합고등학교 교정에서 제4회 큰 여울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최식에 이어 전시관에서 정보처리과 학생들의 그래픽 및 ASP소플링 전시, 4H전시, 통일안보 사진전, 통일신문 등의 전시물을 참관한 후 출다리기, 뚝다리밟기 등 체육대회로 이어졌다.

전학년 재학생을 영, 북, 중, 고 4팀으로 구성하여 진행된 경기에서 종합우승은 영팀, 2위는 북팀, 3위는 고팀, 4위는 중팀이

내촌중학교 어울마당

하였다. 특히 동문회선배들과 재학생들의 축구경기는 이날의 하이라이트였으며 동문회선배들의 우승으로 체육대회를 마쳤다. 이튿날인 8일 예술제는 통일 O·X 퀴즈, 가슴을 열어라, 씨름, 팔씨름, 스타크래프트경기, 가수왕 선발전대회, 댄스공연, 우유마시기대회, 미션임과서블, 미스영북선발전대회(여장남자), 코믹레슬링 등을 선보여 영북중고 학생들이 의 기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했다. 이중 코믹레슬링은 고도의 레슬링기술과 코믹한 연기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가수왕 대상은 2·3반 정의철, 2·2반 이지은, 금상 3·1반 황미나, 은상 3·4반 홍빈나 동상 2·2반 최준수 학생이 차지했다. '큰 여울제'란 한탄강의 물살 빠른 여울목에서 따온 말로 역동하는 청소년의 기개와 포부를 의미하고 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 hsd5333@hanmail.net

오색이 물드는 청명한 가을 바람처럼 조그마한 교정에 학생들의 희망찬 환호로 시작되는 체육 대회와 각자의 개성을 나타내려는 한바탕의 장거리를 풀어놓은 어울 마당을 펼쳐졌다. 오영근 교장선생님의 개회사에 맞추어 햇살 가득한 바람이 싹튼다는 아이의 땀방울을 씻어주고 사랑과 화합이라는 대화하늘 한마음 한뜻으로 기량을 맘껏 펼쳤다. 또 아이들의 환호성과 '넌 할 수 있어' 라는 노래를 끝으로 무엇이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다짐과 한마음로 끝을 맺었습니다. 198명의 학생과 13분의 선생님이 하나되는 모습이 그 어느 교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애뜻함이 있었다. 내촌 중학교의 인사는 "공수(차례)" "배래(경례)" 이다. 효자, 효녀 입나다하는 것이 그 학교의 인사법이라 처음 대하는 나로서는 가슴 뭉클함도 느껴졌고 나 자신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말 한마디, 하나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새삼스럽게 느껴졌고 교정을 활하게 비추는 학생들로 인해 새로운 것을 깨닫게 했다.

김순희

알림판

□ 결혼 □

♡최정미 포천신문 운영위원(현대프라텍 대표) 장남 정재현 군이 금자경 양과 10월22일 오후5시30분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LG강남타워 1층 아모리스홀(02-2005-1011~2)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문의 031-543-3544)

♡우석제 포천신문 조사위원(도봉지공 이사) 장녀 은정 양과 박재국 군과의 결혼식이 10월23일 오후 5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 궁전회관 3층 크리스탈홀(02-989-2000)에서 개최된다. (문의: 031-851-2178)

♡김창호 포천신문협회 사무국장이 이혜숙 양과 10월 23일 오후3시30분 포천시 군내면 소재 용정웨딩홀(031-533-4466)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문의 016-377-8240)

♡권혁남 현대일보 포천주재기자의 장남 화희 군이 이혜영 양과 10월24일 오후3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 궁전회관 3층 크리스탈홀(02-989-2000)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문의 011-399-4683)

♡이희자 포천신문 운영위원(부흥리순대국 대표) 장남 김현수 군이 이경선 양과 10월30일 오후5시 의정부 뉴그랜드호텔 2층 웨딩홀(031-846-3737)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문의 031-542-4466)

♡손상의 본지 조사위원(원창실업 대표)의 장남 성관 군이 박희경 양과 10월30일 오후3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 궁전회관 5층 사파이어홀(02-989-2000)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문의 031-535-8896)

□ 開 業 □

♡포천시 소흘읍 상운아파트 옆에 위치한 그림골프클럽(대표 임재학)이 10월23일 오후1시에 개업식을 개최한다. (031-542-0752)